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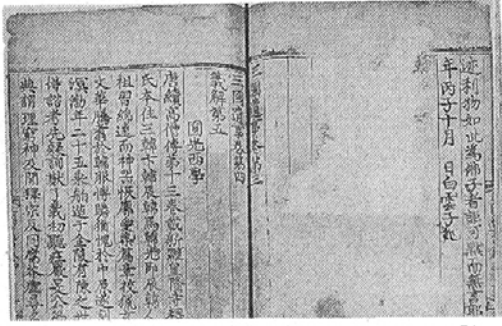
# “신라 불교문학은 세계의 자랑거리”

## 고전문학학회 학술발표회

한국고전문학회(회장 서대석 서울대교수)가 지난 10, 11일 이틀간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진 학술포럼에서는 7명의 국문학자가 ‘국문학과 불교’라는 단일주제하에 본격적으로 불교와 국문학의 관계를 조명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서대석교수는 ‘한국 설화문학과 불교’를 통해 “우리 불교문학은 양적인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면도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손색이 없다”며 “특히 신라 문학은 당시 세계 최고의 사상적 깊이를 지닌 고승들이 참여해 이룩한 민족 문화로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서교수는 설화문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과 관련, 불교의 국가적 위상에 따른 설화의 전승과 변이를 사회 풍조와의 연관 속에서 구체적 자료를 검토하면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구비설화에 대해서



◇ 불교문학의 寶庫인 삼국유사(권3·4·5, 국보 제419호).

## 설화 등 ‘국문학과 불교’ 조명 불교 漢詩는 현실문제도 반영

는 불교와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교수는 설화문학과 불교에 관한 기존 연구 중 방법론상 두드러지는 것으로 △불교 이론에 의해 설화를 해석, 의미를 부여한 김동욱, 김종욱 △금석문헌 문헌자료를 통해 불교설화의 전모를 파악한 황태

강 △설화를 사회계층과 관련 지어 해석한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전반을 기호학이론으로 구조를 분석한 송호영 △상징 및 생화점에 나타난 서동요 양식의 전통과 그 변이 양상(정문태) △사대부작 월령체 전승사가 고찰(송팔성) △(일화전연) 연작 연구(송승욱) 등.

조선조 유교중심의 한문학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여건으로 인해 불교문학은 다른 갈래의 국문학에 비해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불교와 설화문학, 초기소설, 한국시가 등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서 국문학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연구열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전문학회는 동계학술포럼 주제도 ‘국문학과 불교’로 정하고 발표논문을 모아 단행본을 낼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 경주 국제학술포럼 연 신 평 변호사

“법실상부하게 동양화관련 세계최대의 학술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작정입니다.”

지난 8일~11일까지 경주보문단지 경주문화교육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 “교계 참여 높여 불교 발전 꾀할 것”

사상의 세계’ 주제의 제1회 경주국제학술포럼을 주최한 신평변호사(40, 同학술포럼 이사장).

오랫동안 불행사·영일군 대항사와 인연을 맺어온 신씨는 이 포럼이 불교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동국대학교수인 호진스님 법혜스님등과 이 국제포럼에 불교계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평강화재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문화사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있다. <윤>

## 능엄경 구결자료집 펴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은 최근 고려시대의 구결(口訣)자료를 묶은 한국학자료총서 6집 <구결자료집 I(고려시대 능엄경)>을 발간했다.

고려 후기 문법사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가능케 하는 8백 80여쪽 분량의 이 자료집은 구결연구회원들에 의해 10여년간 발굴된 것으로 불교나 유교의 경전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 이 박통삼 본 능엄경 구결은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순독(眞讀)구결로 고려시대 순독구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불교에서 쓰는 시간의 단위가 가장 큰 것이 이 겁(劫)이란 것인데 향하의 모래알 만큼 많은 겁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크고 큰 위신력은 인간에게 매우 짧은 시간에 감응을 한다는 것이 뒷구절의 의미다. 즉 지장보살님을 보고 그 이름을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틈새에 이미 한량이 없는 이익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후손의 부귀’ ‘망자의 극락왕생’ ‘소원성취’ 등을 두루 포함하는 의미이다. <인동 경인중 교사>

## “원효, 대중중심居士불교 지향”

남동신씨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통해 주장



◇ 남동신씨.

원효의 중심사상은 新·舊譯 불교간의 교리는장을 지양하는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지배층 중심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불교대중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

다. 남동신씨(한국외대 강사)는 최근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원효의 대중교화활동은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居士) 불교를 지향했으며, 그의 일심사상에는 인간중심의 세계관, 평등한 인간관, 이타적인 인간관계가 내포되어 있기에 그것

은 재래의 무교(巫敎)가 지닌 자연(또는 神) 중심의 세계관, 차별적인 인간관을 극복한 새로운 사유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남씨의 설명.

남씨는 “원효의 일심사상(一心思想)에 의해 철학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금강삼매경)에 의해 실천성을 부여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화엄경>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간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전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명부전의 명부(冥府)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승이 아닌 저승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아무튼 직지사 명부전도 지장보살님과 10대왕을 모신 곳이며 그 앞기둥의 주련 내용

## 무량한 지장보살 위신력 예찬

진대로 지장보살은 ‘지옥의 모든 중생이 성불한 후에 내가 성불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분이기 때문이다.

또 10대왕은 인간이 이승의 인연을 마치고 난후 그의 생애를 심판하는 소임을 맡은 왕들이다. 때문에 명부전은 인

도 지장보살님을 예찬하는 내용이다.

지장보살의 큰 힘은 ‘항하사’로 상징되는 길고 긴 시간을 두고 얘기해도 다하지 못한다는 앞 두 구절의 의미는 실로 불교적인 수치관이 잘 나타나 있다.

##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 직지사

地藏大聖威神力(지장대성위신력) 恒河沙劫說難盡(항하사겁설난진) 見聞瞻禮一念間(견문瞻禮一念間) (견문瞻禮일념간)

## 利人天無量事 (이익인천무량사)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이여 역겁을 두고 설명해도 다하기 어렵나니 보고 듣고 예배하는 잠깐 사이에

## 명부전

인천(天人)에 이익된 일 무량하여라

직지사 명부전은 고려태조 14(931)년에 능여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현종9년(1668)에 팔상전(八相殿)으로 중건되었다가 다시 명부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

왕상(十王像)을 봉안했다. 70년대초에 축대를 고쳐 쌓고 단청을 새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각의 내부에는 지장보살과 십대왕(十大王)을 봉안했다. 명부전에는 어느 절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장보살과 10왕을 봉안한다. 그것은 잘 알려

## 오분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 계향·정향·해향·해탈향·해탈지경향의 다섯가지 향 공양을 올립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심순서·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답 부처님 전에 향을 하나 피워 올린다고 해도 마음은 채가 없어서 우주 삼라만상을 한 참나에 돌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또 남음이 있죠. 그런 까닭에 물질로서의 향이 아니라 마음의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향을 하나 피워 올리지만 전체 공도체의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구하고 다 두루 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그러자고 우리 모두 마음공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계향이라 하면 부처님 법에 누(累)가 되지 않게, 스승에게 누가 되지 않게, 자기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하겠노라는 마음의 향을 말합니다. 안팎으로 천차만별 다가오는 경계를 다 제 탓으로 돌리며 감사하게

그런지런 여건에 다 전문가가 되어야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도 성격을 따지고 보면 업보성,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유행성등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분향이 된 것이지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마음공부가 됩니다.

## 미륵불 전파하는 종교가 있는데

문 요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땅에 미륵부처님이 이미 오셨으니 이제는 미륵불을 믿어야 한다고 권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제 집에도 찾아왔었는데 그 종교(명칭은 임의로 삭제함)와 불교는 어떻게 다르며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함성만·부산 동구 수정동)

답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는 않군요. 그러나 미륵부처님이란 소리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니 한 마디 일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종교는 듣건대 토착종교이며 교주라는 분이 바로 미륵이 하생한 분이라고 주장한다더군요. 아마도 미륵하생경에

## 지 상 상 담

## 길은 묻는

##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빙에 관해 의심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미유신원 대법원법률문고 담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체와 화목할 수 있고 더불어서 악을 녹이고 선을 여여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절로 계향이란 계향인 것입니다.

둘째, 정향이라 하면 굳건하게 내 불성자리를 믿고 주장자를 세워 나쁜 게 다가오면 물러서 놓고 선한 일, 좋은 일이 다가오면 감사하게 생각해서 물러 놓고 흔들림 없이, 물러섬이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해향이니 물질계와 정신계를 둘로 보지 않는 것, 나와 내가 제 각각 아님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도리를 말합니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만물만생이 무명에 가려지고 묶여있는 것을 알아 스스로를 가느라 여여하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해탈향 아닌 해탈향이지요.

다섯째는 해탈지경향이니 우주 삼라만상, 일체 만물만생에 다 하나로, 한 몸 한 마음으로 느끼고 다스리며, 그렇게 항상 밝아 걸음이 없이 구족한 것을 말합니다.

이 오분향은 오온에 묶인 마음이 일심으로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또한 마음공부의 요체입니다.

그러나 왜 ‘무슨 향’ 하고 한가지로 하지 않고 다섯으로 빌려 놓았느냐 하면 다섯이 다섯이 아니니 다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살이를 보면 전문가라는 이들이 있어서 환자의 병은 의사가 고치고 기계고장은 공업전문가가 다루고 천체운행은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다가오는 일체경계를 전부 타파해 나가지만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모양인데 불경중에 어느 하나를 빌려 쓴다해서 불교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종교란 이름일뿐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물건과는 가계가 하나 둘이 아니듯이 종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설교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친다면 어떤 물건을 누가 가계에서 사나 저 가계에 가서 사나 뭐가 다를게 없듯이 아무 열려가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가계가 다 똑같이 질 좋은 물건만을 팔지 않듯이 종교라는 이름에도 천차만별의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는 길은 이름의 벽을 넘어 진리를 따르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라하면 ‘불’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말하고 ‘교’란 생활 그 자체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가 이런 범위를 벗어난다면 일단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슨 종말론이니 영생이니 하는 교리를 앞세운 종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의 길, 생명의 도리’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숭배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도리를 떠나서는 극락도 천국도 영생도 유희세계도 단연코 없습니다. 그점 주요 경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 나만의 개성과 우아함 청우



## JEWELRY CHUNG 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청우 유자야
- 전시경력
  -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 1976 파리 니제르인 공모전 입상
  -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 1979 파리 프리마르 모자예 공모전 입상
  - 1980 파리 회화 전람회 출품
  - 1977 불란서 예술인 공모 미술작가
  -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회랑)
  - 1982~1984 한국 공예기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일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 월간 대중불교 8월호

정명의 눈

- 쇠부소의 살아있음의 두려움 / 김충철
- 특집 해방 50년, 분단 50년 정신 없이 풀릴 염의 과보 통일불사 50년의 반성과 전망 / 정용철
- 잃어버릴 것과 비로 세울 것 통일이 되어야 조국을 찾자 / 설산·김희균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삼풍백화점, 또 다른 후유증-석면 / 상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 얼과 문화 전남 보성 벌교 흥교/김효정·김성철
- 법담이야기 선운사(2) / 김원준
- 폐사지를 찾아서 (6)가야산 법수사지 / 김성영·최태선
- 불교와 민속 (7)숫대와 당간 / 김중대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서강대학교 박경서 교수 / 김희균
- 수행으로 가는 길/김경경
- 경건, 이렇게 읽는다 / 이재철
-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 말 바라일(3) / 용타

교리산책/임희

- 악업을 방어하는 양심, 윤리 / 정승석
- 에세이 보살불교학/지장보살(1)
- 나는 생활하지 않겠다 / 일지

일상을 깨우는 신문들

- 수행길의 이런 도반 상식을 뛰어넘는 야승, 적음 / 효림
- 포교담 일기 풍선결과 두 아이 / 원욱
-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조정옥·박민숙·변형자

해의 불교 읽기

- 환생의 땅, 티벳의 티벳 가는 길 / 김선정
- 변화하는 연변, 그곳 사람들 / 소완
- 봉주루, 김삼 수제비타령 / 지옥

번어가는 불교

- 포교의 현장 구미불교포럼 / 이춘희
- 직장불교 BBS 공동통신원 불자회

방송과 함께 말씀 익히기

- 불교방송 고려강좌를 권할수록으로 묶습니다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